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부적응 행동 :
유아의 개인적 변인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ersonal and Parental Variables on Young Children's Daily Stress Levels
and Maladjustment Behavior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교 수 이 숙**
시간 강사 김 수 미

Department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Sook Lee

Part time Lecturer : Su mi Kim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relative influences of individual variables (sex, age, temperament) and mother's psychosocial variables (maternal attitude, parenting stress, marriage satisfaction) on daily stress levels and maladjustment of young children attending at daycare centers. Subjects were 224 pairs of children and their mothers, and 18 teachers from 5 child-care centers in Gwangju City. Children were tested individually using 22-item daily stress inventory with illustrations which described certain stressful situations. Questionnaires were also administered to mothers and teachers.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Cronbach's α ,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14.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Overall average score of children's daily stress was equivalent with the median. 'Blame and attack situation' and 'anxiety and frustrated situation' were perceived as more stressful for children than 'lose self-respect situation'. Overall average score of children's maladjustment was lower than the median. 'Overactivity' was highest among subscores of maladjustment. Age was the only significant influential factor on children's daily stress level. Sex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overactivity', 'aggression', and 'regression' of young children. Activity and maternal stress were the second most influential factor on 'overactivity' and 'aggression', respectively.

Corresponding Author : Su mi Kim, Departmen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300 Yongbong-dong, buk-gu, Gwangju 500-757, Korea Tel:+82-62-530-1317 Fax:+82-62-530-1329 E-mail : ksm-child@hanmail.net

* 이 연구는 2006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을 받은 과제임.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임.

주제어(Key Words) : 부적응 행동(Maladjustment Behaviors), 일상적 스트레스(Daily stress), 개인적 변인(Individual variable),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Mother's psychosocial variable)

I. 서론

현대 사회의 유아는 조기교육과 부모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유아기부터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경쟁상황에 놓이게 되며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되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홍성미, 2005). 유아는 성인과 달리 스트레스의 원인을 인식하고 스트레스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적 기술과 언어 발달이 미숙할 뿐 아니라, 유아기 자체가 빠른 신체적 정성적 성숙으로 인한 많은 심리적 갈등과 적응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시기인데다,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것을 오랜 시간 인내하는 힘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적응하는 데에 성인보다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Chandler, 1987).

Lazarus와 Cohen(1977)은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를 가족원의 사망, 질병, 이혼, 실직, 출산 등의 '중대한 생활사건'과 천재지변, 전쟁 등의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및 '일상적 스트레스'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이 중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극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유아에게 있어서 중대한 생애 사건은 유아 개인에게 지대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으로 부모의 사망이나 이혼,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등이며, 일상적 스트레스는 기분 나쁜 일, 속상한 일, 슬펐던 일, 놀랐던 일 등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일들로 부모님께 꾸중 듣는 것, 병원에 가는 것, 친구가 놀리는 것 등으로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사소하지만 부담스러운 일들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말한다(Band & Weisz, 1988). 그런데 중대한 생애 사건보다는 일상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이나 적응을 더 잘 예언해 준다는 연구 결과(Johnson & Rornstein, 1991; Waters, Rubman, & Hurry, 1993)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유아들이 경험하는 일상적 스트레스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해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몇몇의 연구(김승희, 2004; 김지홍, 2004; 이에영, 2006; 홍희란, 2002)를 제외하고 아직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위 환경에 대한 적응이 필수적인데, 유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면 신체적, 언어적, 공격적 행동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에서부터 불안, 공포, 수줍음, 야노 등과 같은 내재화된 행동(Warm, 1989)까지 나타낼 수 있으며 인성 발달의 저해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유아의 부적응 행동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연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전체 유아의 10 ~ 20%정도가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uffman, 1993; Lutz, Fantusso, & McDermott, 2002). 이 중 일시적인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약 3 ~ 7%의 유아가 심각한 수준의 부적응 행동을 보여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이경숙, 신의진, 전연진, 박진아, 2004; 황혜정, 윤영희, 강성빈, 성낙운, 황혜신, 2002). 또한, 유아기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유아의 성장과 더불어 더 큰 사회적 부적응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일탈로 이어지며 성인기까지 지속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남소현, 김영희, 2000). 즉, 연령에 따른 문제 행동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측정한 연구들은 유아기의 문제 행동이 아동기와 청소년기까지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대부분 보고하고 있다(Eisenberg, et al., 2000; Leve, Kim, & Pears, 2005). 이는 유아기 문제 행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조기 개입을 통해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심각한 부적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문제 행동의 원인과 발생 경로를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겠다. Wolfe, Scott와 Wekerle(2003)는 유아의 부적응 행동 문제를 유아기에 해결하지 않고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해결하려는 경우에는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표면상의 행동 수정은 용이할 수 있으나, 이미 내재되어 견고해지고 습관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그 효과도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학자들은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조기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Khaleque & Rohner, 2002)하는 추세이다.

한편,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성과 연령, 기질 같은 개인적 요인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 등에서 비롯되는 심리사회적 요인 등으로 크게 분류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 개인적 변인들에 관해 살펴보면, 성별과 연령, 기질에 따른 차이가 주로 연구되어 왔다. 유아의 성별에 있어서는 총점에 있어서는 성차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하위 영역에 따라 '책임감' (류현숙, 2001), '자존심 상함' (박소영, 문혁준, 2004)에서 여아가 남아에 비해 일상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

는 결과와 총점과 하위영역 모두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고한 연구(김승희, 2004; 안정현, 2003; 황미섭, 2000)들이 있어 비일관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부적응 행동에 있어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부적응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는 연구들(고명순, 1997; 류현강, 2007; 이영숙, 서소정, 2006; 임말자, 최경순, 2003)이 대부분이었다.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해 살펴보면, 박순이(2004)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특히, 가족문제, 자존심, 또래문제, 학교문제 영역에 대한 일상적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박준희(1998)는 6세 보다 7세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안정현(2003)은 전체 일상적 스트레스와 비난 공격적 상황에서 만 6세의 스트레스가 만 4세와 5세에 비해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김윤희(2003)는 유아의 연령을 만 3, 4, 5세로 나누어 비교하였는데 유아의 연령이 높을수록 일상적 스트레스 행동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반면에 박소영과 문혁준(2004)의 연구에서는 만 3세가 만 4세와 만 5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결과를 보였으며, 오경미(2002)는 만 4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스트레스 행동을 살펴본 결과 스트레스 행동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여 유아의 연령에 따른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유아의 기질은 부적응 행동의 개인차 및 안정성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영유아 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에 걸쳐 부적응 행동과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입증되어 왔다. 기질의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특히 부정적 정서성은 외현화 부적응 행동 및 내면화 부적응 행동과 모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으며(Eisenberg, et al., 2001; Kim, Walden, Harris, Karras, & Catron, 2007), 활동성은 공격성,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부적응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inde, Tamplin, & Barrett, 1993; Mathiesen & Sanson, 2000). 반면, 수줍음은 내면화 부적응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Leve et al., 2005), 기질에 따라 유아의 부적응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단 연구들은 유전자 같은 생물학적 요인에 근거를 둔 기질의 안정성이 부적응 행동의 지속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Colder, Mott, & Berman, 2002; Leve et al., 2005; Mathiesen & Sanson, 2000). 국내 연구들도 적응성이 낮고, 활동적이며, 부정적 정서를 쉽게 보이는 유아일수록 부적응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김연 외, 2006; 김연, 한태숙, 황혜정, 2004; 서수경, 1993; 신보영, 1999; 안라리, 2005; 장영숙, 조

정애, 2000) 유아의 기질과 부적응 행동이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유아의 기질과 일상적 스트레스의 관계를 살펴보면, 조소진(2003)은 불안·좌절감 경험은 기질의 하위영역인 활동성, 반응성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함은 기질의 하위영역인 활동성과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자존감 상함은 기질의 하위영역인 반응성과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김지홍(2004)은 적응성과 생리적 규칙성은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전체 일상적 스트레스와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기질 하위 차원인 활동성과 반응성은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다. 김승희(2004)의 연구에서 활동성은 유아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 영역인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하는 정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기분은 전체 일상적 스트레스 정도와 하위 영역인 비난·공격적 상황에 접하는 정도와 불안-좌절감 경험함과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기질의 기분상태, 활동성, 반응성 수준이 높고 적응성과 규칙성 수준이 낮은 경우와 기질이 까다로운 유아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기는 아직 부모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생존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러 선행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유아의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라 볼 수 있다. 또래와의 관계나, 낯선 상황에 대한 적응, 학습에 대한 요구 등 유아가 스트레스를 느끼는 여러 상황 속에서 부모는 유아를 훈육하고 환경을 관리하며 지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장은혜(2000)는 어머니가 '과잉 보호적인 태도'로 양육할 때 유아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으며, 권일선(1995)과 유우영(1998)의 연구에서도 과잉 보호적이고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취하는 어머니의 유아는 유치원 적응을 잘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부모의 거부적 태도, 일관성 없는 양육태도, 과잉보호(김영숙, 1988; 장은혜, 2000)는 아동의 부적응이나 문제 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권일선, 1995; 서동미, 1996). 유아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도 거부적-통제적 양육태도와 전체적인 유아 스트레스 행동과 높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애정적-자율적 양육태도와는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고영미, 1996), 이에영(2006)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애정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경(2005)의 연구에서도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약 19%로 보고되고 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심리 사회적 변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

는 것은 양육스트레스이다. 문혜련(1999)의 연구를 보면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해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박미정, 2001; 양혜영, 정승원, 1999; 엄선희, 1999; 이현정, 1997)에서도 그 두 변인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이처럼 어머니의 자녀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와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일상적 스트레스나 부적응 행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부부갈등은 유아의 위협, 자기비난과 같은 내면화 문제와 매우 깊은 연관성이 있으며, 특히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는 주 양육자인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Grych, Fincham, Jouriles, & McDonald, 2000). 그리고 Barber(1998)는 메타 분석을 통하여 아동의 부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자녀관계와 부부간의 관계이고, 그 관계에는 아동의 특성보다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이 더 설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면서 아동의 부적응 행동을 이해하는데 부모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다. 즉, 배우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어머니는 자녀들과 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며,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Krishnakumar & Buehler, 2000)는 것이다. Davies와 Cummings(1994)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관계에서의 결혼 불만족이나 불일치는 아동의 심리적 적응이나 정신과적 문제, 다양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 Emery와 O'Leary(1984)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 생활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조화의 정도가 아동의 정신과적 문제들과 상관이 높다고 보고했다. 원유미(1998)는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가 높을수록 6세의 경우 유아의 유치원에서의 친사회성과 관련이 있으며, 12세와 15세의 아동인 경우에는 지능발달 및 사회적 능력과도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손인숙(2001)은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어머니의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활동적이고, 교사와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결혼 만족도와 유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조소진, 2003)에서는 어머니가 결혼 만족도가 낮을 때 유아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 요인인 불안·좌절감 경험과 비난·공격적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의 기질 변인과 결혼 만족도 변인 중에서 결혼 만족도가 유아 스트레스 행동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나 부적응에 대한 연구(Band & Weisz, 1988; Burts, Hart, Charleworth, & Kirk, 1990; Kauffman, 1993; Lutz, Fantusso, & McDermott,

2002; O'Brien, 1988)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나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각 영역별로 관련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힌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유아의 개인적 변인(유아의 성, 연령과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결혼 만족도)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며, 부적응 행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둘째, 유아의 개인적 변인(유아의 성, 연령과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결혼 만족도)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 셋째, 유아의 개인적 변인(유아의 성, 연령과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양육태도 및 양육스트레스, 결혼 만족도)이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광주시에 5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 5, 6세 유아 224명(남아:113명, 여아:111명)을 대상으로 그림 검사 도구를 사용하여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였고,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결혼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담당 교사 15명을 대상으로 유아의 부적응 행동을 조사하였다.

2. 검사도구

1) 유아의 기질

본 연구의 검사도구는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Thomas, Chess와 Korn(1977)이 개발한 3~7세 유아를 위한 '부모용 유아기질 평가(PTQ:Parent and teacher Tempe-

rament Questionnaire for children 3-7 years of age)' 를 정은숙(1984), 원영미(1989), 조진선(1999) 등이 번역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모용 유아기질 평가는 유아의 기질을 나타내는 행동 양식을 표현한 9개의 하위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내용은 활동성, 규칙성, 접근-회피성, 적응성, 반응역, 반응강도, 기분상태, 주위전환성, 집중력 및 지속성으로 9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용 유아기질 평가의 문항은 각 하위범주별로 8개의 문항씩 총 72문항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까지 5단계 평정 검사도구에 의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하여 .53이하로 신뢰도가 지나치게 낮게 나타난 '반응역'과 '기분상태', '집중력 및 지속성'의 하위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기질의 하위요인의 차원을 평가하였다. 활동성 차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62, 규칙성과 주의전환성 차원(Cronbach's α)은 .70, 접근-회피성 차원(Cronbach's α)은 .79, 적응성과 반응강도차원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엄현경(1998)이 제작한 23문항으로 구성된 '한국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도구(Korean Preschool Daily Stress Scale :KPDSS)'를 수정하여 제작한 김수미(2007)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도구는 여아용과 남아용으로 분리된 그림 검사자료를 가지고 유아들을 대상으로 측정하도록 제작되었고,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 영역은 '비난-공격 상황' 5문항, '불안-좌절 상황' 12문항, '자존심 상한 상황' 6문항으로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동그라미 크기로 표현된 4점 척도(0: 스트레스를 받지 않음, 1: 스트레스를 조금 받음, 2: 스트레스를 보통 받음, 3: 스트레스를 많이 받음)에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고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9점이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검사도구의 신뢰도계수는 '비난-공격 상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4, '불안-좌절 상황' (Cronbach's α)은 .84, '자존심 상한 상황'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 전체 검사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어머니의 양육태도

박성연과 이 숙(1990)의 양육행동검사도구와 Block(1984)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s Report) 그리고 유우영(1988)의 검사 도구를 참고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류현강

(2007)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가 유의한 것으로 보고한 연구(고영미, 1996; 이애영, 2006; 최혜경, 2005)들을 토대로 애정(7문항), 거부/권위적(7문항), 과보호(6문항), 일관성(6문항)의 4개의 하위요인만을 선택해 2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애정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이며, 거부 권위주의적 하위요인은 .84이며, 과보호 하위요인은 .73이며, 일관성 하위요인은 .71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서 Abidin(1990)의 Parenting Stress Index(PSI)의 Parental Distress요인과 Crnic(1990)등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1990)의 Maternal Guilt Scale(MGS) 등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44문항을 구성하여 한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맞게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김기현과 강희경(1997)의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으로 인한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 부모 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 타인양육에 대한 죄책감 8문항을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비취업모와 취업모를 구분하지 않고 양육자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취업모에게 나타나는 특성인 타인 양육에 대한 죄책감 하위영역을 제외하였으며 일상적 스트레스 12문항,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검사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매우 그렇다'는 5점에 해당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양육에 대해 부모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위 요인별로 나누지 않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전체 24문항의 총합(가능한 점수 범위: 5점 ~ 120점)으로 사용하였으며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5)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

어머니의 결혼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Schumn *et al.*(1981)이 제작한 Kansas결혼 만족도 척도(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KMSS)를 변형하여 제작된 RKMSS (Revises form of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정현숙, 1997)를 사용하였다. 정현숙(1997)은 결혼생활의 복잡한 현상을 평가하기보다는 결혼 지속연수에 따른 결혼 만족도의 변화를 알아보려고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한 RKMSS를 사용하였다. KMSS를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문항의 첨가가 필요하다고 본 정현숙(1997)이 기존의 척도에 새로운 문항 "당신은 아버지로서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까?” 첨가하여 총 4문항으로 구성하고 7점 검사도구로 사용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같은 문항을 5점 검사도구로 사용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4점에서 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대상의 어머니가 응답한 RKMSS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한 결과 .90이었다.

6) 유아의 부적응 행동

Achenbach(1978)가 제작한 아동행동에 관한 질문지(Child behavior checklist)와 Quay(1972)가 제작한 정서적 부적응 질문지를 김영숙(1988)이 번안한 것을 참고로 교사용 질문지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부적응 행동을 5개요인 즉,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으로 변인을 선정하여 각 요인 하나에 6개의 항목으로 30문항을 채택하여 만든 검사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었으며 교사가 평소에 대상유아를 관찰한 내용을 그 빈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매우 그렇다'에 5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부적응 행동의 하위 변인인 위축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 과잉 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7, 공격 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 퇴행 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8, 강박 행동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6으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는데, 먼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를 구하였다. 또,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전체 일상적 스트레스의 평균은 1.54($SD = .75$)로 나타나 중간 점수(1.5점)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인 '비난-공격 상황'과 '불안-좌절 상황'에서의 평균이 각각 1.66($SD = .75$), 1.60($SD = .76$)로 나타났으며, '자존심 상한 상황'의 평균은 1.37($SD = .89$)로 나타나 유아들이 '비난-공격 상황'이나 '불안-좌절 상황'일 때가 '자존심 상한 상황'보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전체 부적응 행동의 평균은 2.24($SD = .58$)로 나타나 중간 점수(3점)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유아의 부적응 하위 요인인 '과잉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42($SD = .84$), '퇴행행동'과 '강박행동'이 모두 2.15($SD = .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1).

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개인적 변인,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VIF)와 Durbin-Watson(DW)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잔차간 자기상관 유무를 검토하였고, 회귀 모델에 대한 회귀진단(F검증)을 실시하였다. VIF계수는 1.16 ~ 1.94로 1점대에 머물러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고, DW계수도 1.77 ~ 1.94의 범위로 2에 가까워 잔차간 자기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 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유아의 연령($r = -.22, p < .01$), 규칙성($r = -.14, p < .05$), 집중력 및 지속성($r = -.15, p < .05$)과는 부적 상관을, 반응강도와는 ($r = .17, p < .05$) 정적 상관을

〈표 1〉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의 일반적 경향

(N = 224)

변인	전체(N = 224)		남(N = 113)		여(N = 111)		
	M	SD	M	SD	M	SD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하위변인 (0~3점)	비난-공격 상황	1.66	.75	1.77	.75	1.55	.75
	불안-좌절 상황	1.60	.76	1.68	.75	1.55	.81
	자존심 상한 상황	1.37	.89	1.44	.79	1.29	.91
유아의 전체 일상적 스트레스(0~3점)		1.54	.75	1.64	.73	1.46	.77
부적응 행동 (1~5점)	위축행동	2.24	.75	2.27	.76	2.21	.75
	과잉행동	2.42	.84	2.67	.84	2.17	.76
	공격행동	2.23	.98	2.57	1.01	1.88	.80
	퇴행행동	2.15	.74	2.30	.73	2.00	.72
	강박행동	2.15	.74	2.21	.76	2.09	.72
유아의 전체 부적응 행동(1~5점)		2.24	.58	2.40	.58	2.07	.54

〈표 2〉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N = 224)

변인군	변인	비난-공격 상황		불안-좌절 상황		자존심 상한 상황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B	β	B	β	B	β	B	β
유아의 개인적 변인	성별	.23	.15	.13	.08	.18	.10	.19	.11
	연령	-.08	-.08	-.19	-.19**	-.19	-.17*	-.19	-.17*
	활동성	-.01	-.01	-.02	-.01	-.06	-.04	-.06	-.04
	규칙성	-.12	-.12	-.01	-.01	-.14	-.12	-.13	-.12
	접근회피성	.08	.08	.05	.05	.03	.03	.03	.03
	적응성	.03	.02	.02	.01	.09	.05	.08	.05
	반응강도	.07	.08	.13	.14	.12	.10	.11	.10
	주의전환성	.05	.04	.02	.01	.13	.09	.12	.09
어머니 심리 사회적 변인	집중력 및 지속성	-.09	-.08	-.16	-.13	-.19	-.14	-.19	-.14
	애정적	-.07	-.05	-.09	-.06	-.12	-.07	-.11	-.07
	거부적	-.07	-.06	-.12	-.09	-.10	-.07	-.14	-.09
	과보호	-.08	-.06	.13	.10	.04	.03	.02	.01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09	.07	.00	-.01	.01	.10	.15	.10
	결혼 만족도	.06	.06	-.01	-.01	.04	.04	.06	.06
R^2		.02		.05		.06		.05	
F		1.37		1.75*		2.06*		1.86*	
DW		1.87		1.94		1.77		1.87	

주. 성별은 0 : 여아 1 : 남아로 가변수 처리.

* $p < .05$. ** $p < .01$.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과는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대한 유아의 개인적 변인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연령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beta = -.17, p < .05$)와 하위 변인인 ‘불안-좌절 상황’($\beta = -.19, p < .01$), ‘자존심 상한 상황’($\beta = -.17, p < .05$)에 유일하게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회귀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개인적 변인,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간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분산확대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와 Durbin-Watson(DW)계수를 산출하여 다중공선성 여부를 재확인하고 잔차간 자기상관 유무를 검토하였고, 회귀 모델에 대한 회귀진단(F검증)을 실시하였다. VIF계수는 1.17 ~ 1.94로 1점대에 머물러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회귀 가정은 만족스럽다고 볼 수 있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성별이 부적응 행동의 하위 변인의 과잉행동($r = .30, p < .001$), 공격행동($r = .36, p < .001$), 퇴행행동($r = .20,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

유아 기질의 하위 변인인 활동성이 과잉행동($r = .30, p < .001$), 공격행동($r = .24,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유아 기질의 하위 변인인 접근 회피가 과잉행동($r = .15, p < .05$), 공격행동($r = .14,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심리 사회적 변인 가운데, 어머니의 양육태도 하위 변인인 거부적 양육태도는 위축행동($r = .14, p < .05$), 퇴행행동($r = .14,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퇴행행동($r = .16, p < .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과잉행동($r = .21, p < .01$), 공격행동($r = .15, p < .05$), 퇴행행동($r = .18,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대한 유아의 개인적 변인과 어머니의 심리 사회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위축행동과 강박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과잉행동에는 유아의 성별($\beta = .30, p < .001$), 활동성($\beta = .23, p < .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beta = .20, p < .05$)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성별이 남아일 때,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과잉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 행동에도 유아의 성별($\beta = .35, p < .001$)이 가장 영향력이 높았으며, 활동성($\beta = .18, p < .05$)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beta = .18, p < .05$) 순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성별이 남아일 때,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

(표 3) 유아의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변인의 영향력

(N = 224)

변인군	변인	위축행동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		강박행동	
		B	β	B	β	B	β	B	β	B	β
유아의 개인적 변인	성별	.12	.08	.50	.30***	.66	.35***	.32	.22**	.14	.10
	연령	-.08	-.08	.04	.04	.05	.04	-.06	-.07	.01	.01
	활동성	-.12	-.10	.32	.23**	.28	.18*	.07	.05	-.01	-.00
	규칙성	-.05	-.05	-.06	-.05	-.03	-.03	-.07	-.07	-.08	-.09
	접근회피성	-.12	-.12	.02	.02	.05	.04	.02	.02	-.10	-.10
	적응성	.14	.11	.05	.03	.02	.01	-.01	-.01	.09	.07
	반응강도	-.02	-.02	.02	.02	.04	.03	-.10	-.10	-.18	-.20
	주의전환성	-.09	-.08	.11	.08	.13	.09	-.05	-.05	-.03	-.03
어머니 심리 사회적 변인	집중력 및 지속성	-.04	-.03	-.03	-.03	.01	.01	.02	.02	-.04	-.04
	애정적	.10	.07	.11	.07	-.04	-.02	.02	.01	.21	.15
	거부적	.24	.19	.07	.05	-.07	-.04	.16	.13	.16	.13
	과보호	.04	.04	.09	.07	.09	.06	.08	.07	.02	.02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08	-.06	.28	.20*	.30	.18*	.10	.08	.17	.14
	결혼 만족도	-.14	-.15	.01	.01	.01	.01	-.00	-.00	-.03	-.04
R^2		.02		.16		.14		.05		.02	
F		1.26		3.86***		3.5***		1.80*		1.36	
DW		2.02		1.54		1.54		1.66		1.33	

주. 성별은 0 : 여아 1 : 남아로 가변수 처리.

* $p < .05$. ** $p < .01$. *** $p < .001$.

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퇴행행동에는 유아의 성별($\beta = .22, p < .01$)만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성별이 남아일 때 퇴행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이 어느 정도 인지를 살펴보고, 유아의 개인적 변인(유아의 성, 연령과 기질)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양육태도 및 양육 스트레스, 결혼 만족도)이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전체 평균이 1.54점으로 중간점수(1.5점)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비난-공격 상황(1.66점)'과 '불안-좌절 상황(1.60점)' 일 때가 '자존심 상한 상황(1.37점)' 보다 일상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응 행동은 중간점수(3.0점)에 비해 약간 낮은 2.24점으로 나타났고, 하위 영역중 과잉행동이 가장 높은(2.42점) 경향이 있었고, 위축행동, 공격행동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아에게서 퇴행이나 강박행동보다는 과잉행동이나 위축, 공격행동 등이 많이 나타나는 특성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총점과 '불안-좌절 상황' 및 '자존심 상한 상황'에서 유아의 연령만이 유의하게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연령이 어릴수록 일상적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연령이 어릴수록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상처받기 쉽다는 연구 결과(Wallen, 1993)를 지지해주며, 스트레스 상황에 알맞은 스트레스 대처행동을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라 하겠다. 4-6세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보다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소영과 문혁준(2002)의 연구에서 일상적 스트레스 평균 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도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또한, '비난-공격 상황'에서는 유아의 개인적 변인이나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유아의 부적응 행동 총점과 과잉행동, 공격행동, 퇴행행동에만 유아의 성별이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보다 부적응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남아일 경우 과잉행동과 공격적인 행동, 퇴행행동을 높게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남아가 여아보다 생물학적인 차이 때문에 사회적 부적응의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해볼 수 있지만, 성차에 따른 조기 사회화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과잉행동과 공격행동에는 활동성이 성별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그 다음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활동성이 높을수록 유아는 과잉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하였는데, 활동성은 공격성, 과잉행동과

같은 외현화 부적응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Hinde, Tamplin, & Barrett, 1993; Mathiesen & Sanson, 2000)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은 과잉 행동 아니라 다른 유아를 공격하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여 주의 및 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유아가 과잉 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어머니는 유아와의 심리적 친밀감이나 애착 등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이것이 유아의 과잉행동과 공격적인 행동을 유발하여 사회적 부적응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의 연령은 일상적 스트레스의 지각에 매우 의미 있는 변인으로서, 연령이 어릴수록 일상적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 일상적 스트레스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유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연령 이외에도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변인들을 탐색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남아일 경우 여아보다 과잉행동과 공격적인 행동, 퇴행행동 등과 같은 부적응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아기부터 성에 따라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셋째, 유아의 부적응 행동이 활동성과 같은 타고난 기질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교사 교육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질 차이를 고려하여 유아들이 기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제공함과 더불어 가정과 기관의 상호작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유아들의 기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과잉행동이나 공격 행동 같은 외현적인 부적응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전문적인 부모 교육을 제공해주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됨으로써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부적응 행동을 증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에 관련된 유아의 개인적 변인과 어머니의 심리사회적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연구하여, 그 상대적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앞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변인들을 포

함하여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혀내는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적응 행동이 심각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고명순(1997). 어머니의 취업과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영미(1996).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가족변인과 성별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일선(1995). 어머니의 자아개념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김수미(2007).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1(2), 89-1004.

김승희(2004).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연, 한태숙, 정인희, 박연경, 황혜정, 구현아(2006).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양육 태도, 기질, 인지능력, 사회적 능력 간의 구조모형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1(2), 229-250.

김연, 한태숙, 황혜정(2004). 유아의 정서지능·인지능력·기질과 문제행동의 관계성 및 영향력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4(6), 277-298.

김영숙(1988).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윤희(2003). 유치원 중일제 유아들의 환경변인별 일상적 스트레스 행동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지홍(2004). 아동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남소현,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내면적 부적응 행동. **대한가정학회지**, 15(2), 199-213.

류현강(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유아의 기질과 부적응 행동.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류현숙(2001).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 유형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문혜련(1999).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양육스트레스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능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미정(2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유형,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소영, 문혁준(2004). 유아 스트레스 관련 변인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2), 1-14.
- 박순이(2004). 부모와 교사의 유아발달 기대수준과 유아의 일상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준희(1998).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그 대응책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동미(1996).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서수경(1993). 유아의 행동과 기질 및 성차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손인숙(2001). 유아의 유치원 적응 관계변인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보영(1999). 어머니와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문제 행동간의 관계. **아동교육**, 8(2), 99-111.
- 안라리(2005). 유아의 개인변인 및 어머니의 정서성과 유아의 정서 발달, 사회적 능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안정현(2003).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유형과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혜영, 정승원(1999). 양육환경과 기관의 질이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0(4), 141-158.
- 엄선희(1999).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어머니의 자녀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미(2002). 유아의 연령, 성별 및 유치원의 운영시간에 따른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영미(1989).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원유미(1998). 부모의 양육태도, 결혼 만족도, 의사결정유형과 자녀 특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유우영(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 관련변인의 인과관계.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숙, 신의진, 전영진, 박진아(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4), 53-73.
- 이애영(2006). 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숙, 서소정(2006). 유아의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 유아와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유아의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5), 143-155.
- 이현정(1997). 어머니가 인식하는 자녀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말자, 최경순(2003).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교육기관 적응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1), 189-207.
- 장영숙, 조정애(2000). 교사가 지각한 유아의 문제행동과 유아의 성별, 연령, 기질 및 교사기질과의 관계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2), 97-119.
- 장은혜(2000).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치원에서 유아의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숙(1984). 아동의 기질과 인기도 및 양육태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현숙(1997). 결혼 만족도 연구와 척도의 고찰을 통한 새로운 연구방향과 척도의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5(1), 191-204.
- 조소진(2003). 유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진선(1999). 어머니가 지각한 유아의 기질과 성역할 선호성과의 관계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경(2005). 유아의 인성특성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일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성미(2005).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유아의 자아통제와 또래 유능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희란(2002).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미섭(2000). 가정환경에 따른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의 차이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혜정, 윤명희, 강성빈, 성낙은, 황혜신(2002). 유아용 문제 행동 진단검사의 개발연구. **유아교육연구**, 22(1), 73-88.

- Band, E. B., & Weisz, J. R.(1988). How to feel better, When it feels bad: Children’s perspectives on coping with everyday stress. *Development Psychology, 24*, 247-253.
- Barber, B. K.(1998). Interparental conflict styles and youth problems behaviors: A two-sample replication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119-132.
- Burts, D. C., Hart, C. H., Charleworth, R., & Kirk, L.(1990). A comparison of frequencies of stress behaviors observed in kindergarten children in classrooms with developmentally appropriate versus developmentally inappropriate instructional practice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 407-423.
- Chandler, L. A.(1987). Childhood stress: Teacher’s role. (ERIC Document No. ED 285-369).
- Colder, C. R., Mott, J. A., & Berman, A. S.(2002). The interactive effects of infant activity level and fear on growth trajectories of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 1-23.
- Davies, & Cummings(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isenberg, N., Cumberland, A., Spinrad, T. L., Fabes, R. A., Shepard, S. A., Reiser, M., et al.(2001). The relations of regulation and emotionality to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2*(4), 1112-1134.
- Eisenberg, N., Guthrie, I. K., Fabes, R. A., Shepard, S., Losoya, S., Murphy, B. C., et al.(2000). Prediction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from attentional and behavioral regulation and negative emotionality. *Child Development, 71*(5), 1367-1382.
- Emery, & O’Leary(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 in nonclinic samp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 Grych, J. H., Finchman, F. D., Jouriles, E. N., & McDonald, R.(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Testing the mediational role of appraisal in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71*(6), 1648-1661.
- Hinde, R. A., Tamplin, A., & Barrett, J.(1993). Home correlates of aggression in preschool. *Aggressive Behavior, 19*, 85-105.
- Johnson, J. G., & Rornstein, R. F.(1991). Does daily stress independently predict psychopatholog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0*, 58-74.
- Kauffman, J. M.(1993). *Characteristics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ren and youth*(5th ed.). NY: Macmillan.
- Khaleque, A., & Rohner, R. P.(2002).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meta-analysis of cross cultural and intracultural stud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4*, 54-64.
- Kim, G., Walden, T., Harris, V., Karras, J., & Catron, T.(2007). Positive emotion, negative emotion, and emotion control in the externalizing problems of school-aged Children.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7*, 221-239.
- Krishnakumar, A., & Buehler, C.(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parenting behaviors: A meta analytic review. *Family Relations, 49*, 25-44.
- Lazarus, R. S., & Cohen, J. B.(1977). Environmental stress. In Altman, I. & Wohlwill, J. F.(Eds.), *Human behavior and the environment: Current theory and research*(pp. 89-137). New York: Plenum.
- Leve, L. D., Kim, H. K., & Pears, K. D.(2005). Childhood temperament and family environment and predictor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trajectories from age 5 to 17.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5), 505-520.
- Lutz, M. N., Fantusso, J., & McDermott, P.(2002).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 problems of low-income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7*, 338-355.
- Mathiesen, K. S., & Sanson, A.(2000). Dimensions of early childhood behavior problems: Stability and predictors of change from 18 to 30 month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8*(1), 15-31.
- O’Brien, S. J.(1988). Childhood stress: A creeping

- phenomenon. *Childhood Education*, 65, 105-106.
- Wallen, J.(1993). Protecting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in dangerous neighborhoods. *Children Today*, 22(3), 25.
- Warm, R.(1989). Improving stress-related behavioral indicators in the preschool classroom through prevention and intervention.(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07-049).
- Waters, W. F., Rubman, S., & Hurry, M. J.(1993). The prediction of somatic complaints using the Autonomic Nervous System Response Inventory(ANSRI) and the Daily Hassles Inventory(DSI). *Journal of Psychosomatic Research*, 51(2), 117-125.
- Wolfe, D. A., Scott, K., & Werkerle, C.(2003). Child maltreatment: Risk of adjustment problems and dating violence in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3), 282-289.

접 수 일 : 2008년 7월 21일

심사시작일 : 2008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0월 20일